

지난 4. 25-29에 제 2 회 직원해외연수단 15명은 김돈균 부산지부장 (부산의대 교수)을 단장으로 하여 일본 경도공장보건회와 滋賀보건연구센터를 견학하고 일본의 문화를 살펴보았다. 짧은 연수기간이나마 각기 나름대로 많은 점을 보고 배우고 느꼈으리라 믿는다. 연수자들의 소감을 간략히 추려본다.

부산지부 건강관리과장 천 윤 원

경도공장보건회와 시가보건연구센터를 견학하면서 종합화상진료와 건강증진업무 분야는 우리 일행으로 하여금 한국의 산업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분발의 계기가 된 것 같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정착되리라 믿고 우리 연수단이 밑거름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의욕을 불태워 주었다.

앞으로도 연수기회가 주어져 협회의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산 연수가 되기를 바란다.

본부 교육훈련과장 신 호 남

인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작업자 몇명이 모두 안전모와 통일된 작업복, 안전화, 귀마개까지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휴

대용 집진장비 인듯한데 불력을 자를 때 비산되는 광물성분진이 비닐주머니속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인접도로에는 통행표시를 임시적으로 식별하기 쉽게 설치하였으며 안전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또 공사현장 중앙에는 완장을 두른 안전관리자 인듯한 사람이 작업감시 및 통행자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었다.

그런 작업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도 이 정도로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도로와 인도에 어디를 가나 휴지 한장, 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보면서 또 한번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서울지부 청계센터 김 을 란

다람쥐 채바퀴 돌듯하던 나의 생활에서 시각을 다른 세계로 돌릴 수 있었기에 일본연수방문은 나에게서 최고의 시원한 청량제가 되었던 것 같았다.

직업병의 발견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건강증진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경도공장보건회와, 지역사회와 보건센터가 서로 협조하여 노인건강진단과 학생보건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시가보건연구센터의 운영이 감명깊었다. 그리고 일본인들과 접하면서 한국과 여러면에서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우리가 배울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나라임을 실감했다. 조용하면서도 활기찬 기운이 있었고 어디를 가나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친절성에서 국가가 부강하다는 것보다 국민 자신들의 자신감이 더욱 부강한 나라임을 실감하였다.

광주전남지부 건강관리과장 김 형 호

경도공장보건회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의 직무태도는 모두 열심이었으며, 특히 매주 월요일 이후의 각 실, 과별 업무토론 시간과 월 1회의 총업무평과회를 통하여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어학실력이 부족하여 내 의사를 그들과 교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 점이며, 이 점에 대해서 차기의 연수자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최소한 일년전부터 어학 공부는 물론 자기 업무에 관한 파악과 개선안 연구 그리고 연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개인적으로 준비한 후 연수에 임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또 연수로 많은 점을 배웠으나 그 중에서도 일본인들의 온고지신 사상과 적은 일에 충실하고 시종일관 친절하며 자기일에 충직한 면을 배워서 흐뭇하다.

대구경북지부 산업위생계장 이 종 관

우리의 역사속에서 민족적인 감정이 앞서 배타적인 시야로서 바라본 나는 우물안 개구리 모양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 외국의 실제모습 그대로를 볼수 있었다는 점이 나에겐 큰 소득이었다.

우리보다 앞서있는 경도공장보건회와 시가보건연구센터의 사업내용과 시설을 둘러보고, 또 그들의 생활환경속에서 잘 정리된 도로, 안내간판, 깨끗한 주위환경을 보았으며, 몸을 아끼지 않는 자존심이 강한 국민성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도 산업보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우리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며 배울 것을 배우고 모방할 것은 모방하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남지부 관리과장 류 환

견학을 하면서 앞으로 산업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려면 우리 협회의 모든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하고 산업보건종사자로서 긍지와 바램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는 다짐을 하였다.

사실 연수에 참가하면서도 배움보다는 관광이라는 마음이 앞섰고 연수목적은 제대로 인식치 못한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앞으로도 우리보다 산업보건분야가 앞선 국가를 견학하면서 참다운 배움을 서로 교환하는 연수가 되기를 바란다.

동해센타 건강관리과장 정 채 권

산업보건분야에 각 대학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검진기관의 난립이 없다고 하는 선진국의 이미지가 감명 깊었다. 그리고 회원사업장에는 위생관리자가 월 1회 순회교육 및 보건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 줌으로써 회원기관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가면서 노동자 건강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돋보였다

또 그들의 진료시설과 검진차량, Health Care 센터의 시설을 둘러보며 우리 협회도 머지않아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예방을 넘어서 건강증진을 위주로 하는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서울지부 건강관리과 서 명 희

최근 몇년사이 과거의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협회도 해외로 눈을 돌려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뿌듯함으로 연수길에 올랐다.

관계기관을 견학하면서 많은 점을 느끼고 배운점이 많았으나 한가지 스스로 아쉬웠던 점은 일본의 사업장 작업조건과 유해부서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및 안전조치 상황, 검진기관에서의 검진실시방법 등을 현장견학하는 계기가 주어졌으면 하는 점이였다.

전북지부 건강관리과장 소 순 영

짧은 여정이지만 한국민의 자존심과 협회 직원으로써 긍지를 잃지않고 협회 발전을 위해 무엇을 보고 올 것인가를 머리속에 구상하며 연수에 참여했다.

견학한 관계기관의 예상은 물론 시설 및 장비면에서 우리와 격세지감을 실감했다. 특히 각 사업단체 및 사회기관에서 기증했다는 차량 및 의료장비를 보고 우리나라 기업가나 정부관계자가 동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풍요속에서도 절약, 그러면서도 혼자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협조정신이 현격하게 우리 사회와는 판이한 점 같았다. 질서속의 발전, 친절속의 실리, 공동의식의 집결, 오늘날의 일본이 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의식구조가 한시바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심어지길 바라본다.

서울지부 건강관리과장

홍 성 태

사업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관찰하는데 만족할 만한 기대를 하기에는 미흡하였으나, 역히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었고 느낀 바가 있었다.

연구기간동안 나름대로 물적자원이 부족한 섬나라가 세계의 경제부국이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일본인의 친절성이다.

몇일간의 생활속에서 느낀 것은 유아시절부터 가정과 학교, 메스컴 등을 통해 익혀온 친절성과 예의바른 인사성이 일본인의 생활구석구석에 몸에 길들여져 있었다.

둘째, 질서의식이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질서(약속)를 정확히 지켜나가는 생활태도를 교통질서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다.

셋째, 집단의식과 정직성이다.

개인적으로는 약한 듯하나 단체로 뭉쳐진 일본인의 힘은 대단히 강하게 느껴졌다. 관광지에서 집단관광모습과 또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우리 연수단 일행을 안내해준 경도공장보건회 직원들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대구경북지부 건강관리과장

김 용 근

연수를 떠나기에 앞서 배웅차 공항에 나오신 최병수 전무이사님의 '국가간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나자신의 외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진지한 견학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너무도 잘 이루어져 있는 일본 산업보건의 역사와 현 실정을 견학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미미한 것이 많구나 하면서도 언젠가는 일본을 앞서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우리도 머지않아 일본보다 더 좋은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어놓은 환경속에서 사업장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교보건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함이 앞으로의 연구과제인 것 같다.

짧은 연수기간이라 아쉬운 점이 많았으며, 일본에 대한 역사와 언어풍습 등 어느정도 기본지식을 알고 참여했다라면 알찬 연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서울지부 건강관리계장

최 병 윤

우리 일행이 경도공장보건회에 들어섰을 때 한결같이 밝은 웃음을 띤 그곳 직원들의 깎듯한 인사성, 이런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사업운영면에서 환자를 발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근로자를 더욱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사업추진목표와 내용이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실태와 비교할 때 부러움이 앞섰다.

시가보건연구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위 X선 촬영기를 장착한 출장검진용 차량이 돋보였고, 한 사업장의 검진이 끝나면 곧바로 검사물을 중간 인수 수송하여 즉시 검사처리하는 과정이 펍 인상적이었다.

사업보건사업의 역사는 우리가 비록 짧지만 우리도 하루속히 그

런 시설과 직원들의 친절함을 본받아 우리것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본부중앙분석실장

김 석 원

우선 일본에 대한 첫 인상은 도로 포장율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훨씬 선진화 되었다는 점 및 건물 등에 대한 도색 면에서 원색을 선호 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하여 무척 깨끗하였다는 점이다.

또 건물에 있어서 창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척 넓어서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사회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일본인에 대한 느낌은 개개인의 내적인 성격은 일정이 짧은것에 기인하여 파악하기 힘들었으나 외적인 면으로는 지나칠 정도로 무척 친절하다는 느낌 이었다.

산업보건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에 의해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 및 치료단계인 점에 대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진일보된 단계로 예방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무척 부럽고 발전적 이었다.

우선 무척 인상깊은 연수기간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여러 타 직원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많이 부여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느낀다.

